

제59회 SGRA포럼 (기획안)

제3회 「한국·일본·중국에서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전란에서 안정으로—〉

일시 : 2018년 8월 24일 (금) ~ 28일 (화)

장소 : 대한민국 서울 더케이 호텔 외

주최 : 아쓰미 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SGRA)

공동개최 : 과학연구비 신영역연구 「화해학의 창성」, 와세다대학 동아시아 국제관계연구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성 : 동경클럽

■ 포럼의 취지 :

동아시아에서 “역사화해”의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로서 남아 있다. 강화조약이나 공동성명에 의해 국가 사이의 화해가 법적으로 성립했다고 할지라도, 국민 레벨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진정한 국가 간의 사회는 요원하다. 역사가는 역사화해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1600년을 전후로 한 한 세기는 동아시아가 세 번째로 대규모의 전란에 직면한 시대였다. 동아시아에는 중국 시장이 세계로부터 끌어들이고 있던 은을 조선에서 제련 기술을 배운 일본이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구조 속에서 긴밀한 경제관계가 만들어 졌다. 한편 경제번영은 지역권 내의 제 민족에게 정치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에 의한 두 차례의 조선침략 및 만주족에 의한 중국에서의 청나라 건국이 그것이다. 경제에서의 상호 의존성 심화와 각국의 패전쟁탈이 동시에 진행되며 만들어진 대규모의 전란, 그리고 그 이후의 장기안정은 현대 동아시아에 깊은 자성을 불러온다.

다만 이번 회의의 목적은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위에 “대화”에 의해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원활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어 ↔ 일본어, 일본어 ↔ 중국어, 중국어↔일본어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 원탁회의의 강연록은 SGRA 레포트로 작성해 3개국어로 발행하고 SGRA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포럼의 경위 :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7월, 제49회 SGRA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知的 공유공간” 혹은 “知的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년 9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1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교수 (동경대학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 (복단대학 교수), 조광 교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

해, 세 나라의 여러 “국사”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2회 대화에서는 자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고침략과 13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년 8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명의 국사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행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행해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제3회 대화는 보다 시대를 내려와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본 원탁회의는 2016년도부터 매년 1회, 총 5회 개최할 계획이다. 남은 2회는 근현대사를 테마로 설정할 예정이다.

■ 일정

8월 24일 (금) 오후 6시 ~ 환영회 (석식)

8월 25일 (토) 오전 9시 ~ 12시 30분 : 개회식과 기조강연, 원탁회의 (발표①)

<오후는 아시아 미래회의 개회식과 기조강연·심포지움 웰컴파티 참가>

8월 26일 (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원탁회의 (발표②, 발표③, 토론, 총괄+패널디스커션)

각 세션은 90분, 3명의 연구발표 (각 20분) + 상호 코멘트 (답변 포함 각10분)

<오후6시~아시아 미래회의 웰컴파티 참가>

8월 27일 (월) 스테티 투어 (남한산성)

■ 프로그램

【기조강연】 조광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7세기 동아시아사의 전개와 특성-한국사의 전개를 17세기 세계사 안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연구발표】 한국·일본·중국에서 3명씩 : 가능한 한 각국의 연구가 왜란, 호란, 경제/생활을 테마로 할 것

일본	아라키 가즈노리 荒木 和憲	Araki Kazunori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임진전쟁’의 강화 교섭
일본	스즈키 가이 鈴木 開	Suzuki Kai	동경대학	‘호란’ 연구에서 주의할 점
일본	마키하라 시게유키 牧原 成征	Makihara Shigeyuki	동경대학	‘일본의 근세화와 토지, 상업, 군사’
한국	최 영창 崔 永昌	Choi Youngchang	국립진주박물관	한국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
한국	허 태구	Huh Tae-koo	가톨릭대학교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

	許 泰玖			란
한국	최 주희 崔 姪姬	Choi Joo-hee	국학진흥원	17세기 전반 唐糧의 운영과 국가의 재정부담
중국	자오 이펑 趙 軼峰	Zhao Yifeng	동북사범대학	한중관계의 특징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연동
중국	치 메이친 祁 美琴	Qi Meiqin	인민대학청사연구소, □청사연구□ 편집장	라마교와 17세기 동아시아 정국
중국	쑤 쥬엔 鄭 潔西	Zheng Jiexi	닝보대학 인문학원	기만인가, 타협인가-임진왜란기의 외교교섭

【자유토론】

【패널디스커션】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

■ 패널디스커션에 와세다대학에서 초대(조정중)

일본 : 미타니 히로시 (아토미학원 여자대학), 아사노 도요미 (와세다대학)

한국 : 조광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박훈 (서울대학교)

중국·대만 : 楊彪 (화동사범대학), 王文隆 (대만정치대학)

■ 국사연구자를 초대

【일본】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京都大学), 김보광 (가천대학교), 이외

■ 실행위원회

① 코멘테이터

거자오광 葛兆光 (복단대학) *, 조광 趙珖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 명예교수),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동경대학 명예교수), 류지에 劉傑 (와세다대학)

② 서포트 그룹

이엔민 李恩民 (오비린대학), 슈징보 徐静波 (복단대학), 무라 가즈아키 村 和明 (미쓰이문고),

펑하오 彭浩 (오사카시립대학) *, 손군열 孫軍悅 (동경대학), 김범수 金範洙 (동경학예대학),

김경태 (고려대학교), 정순일 鄭淳一 (고려대학교) *서울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음

③ 동시통역 (가능한 한 같은 사람에게 부탁)

일본어⇔중국어 : 정리 丁莉 (북경대학), 송강 宋剛 (북경외국어대학)

한국어⇔일본어 : 이혜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연희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

중국어⇔한국어 : 김단실 金丹実 (프리랜서), 박현 朴賢 (경도대학)

④ 사무국 (아쓰미재단)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혼다 야스코 本多康子

⑤ 논문 번역과 교정

류지에 + 와세다대학팀

⑥ 발표자료집과 레포트 편집

일본어관 : 나가이 아유미 長井亜弓,

한국어관 : 고희탁 高熙卓

중국어관 : 쑨 쟈쥘 孫建軍

■ 타임라인

12월까지 발표자 확정

1월까지 발표제목, 발표요지, 이력제출

4월말까지 풀페이지 (5~10페이지) 제출

6월중순~7월 말- 번역. 한중일 3개국어로 각 논문 번역

8월상순, 회의 자료 송부 및 발표자료집 작성

8월 24일 ~ 28일 제3회 국사들의 대화 원탁회의(제4회 아시아 미래회의@서울 일정내 개최)

8월말까지 기제출 발표 논문 및 원고 수정

연도내에 레포트 (논문집) 편집, 발행 완료

■ 기타

- 아시아 미래회의 참가자는 누구나 참가(청강) 가능. (당일 참가자도 아시아 미래회의 참가비를 지불해야 함)